

C군의 B급 잡설, 영단어 어원탐구 Chapter - 17

글.
조인준 KBS 기술연구소 차장

10월, 밤이 되면 제법 쌀쌀하고 은근 쓸쓸한 분위기에 꽤나 옛 추억 가득한 노래들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이맘때 택시 라디오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노래는 아마 ‘잊혀진 계절’이나 ‘When October goes’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신 발라드나 아이돌의 노래가 아닌 케케묵은 노래가 흘러나오는 순간의 택시는 일시적이지만 바깥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시간이 보존된 공간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렇게 택시에 앉아 라디오의 케케묵은 노래를 듣다 보면, 노래보다는 세련된 차창 밖의 풍경에 세상 혼자인 것 같은 웬지 모를 단절감이 연쇄효과처럼 일며 꼭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에릭 카멘의 ‘All by myself’... 1975년에 발표된 노래이다 보니 아마 대중적으로는 원곡보다 90년대에 머라이어 캐리나 셀린 디옹에 의해 리메이크된 곡이 더 친숙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When I was young, I never needed anyone’으로 나지막이 시작하다가 중간에 ‘And love so distant and obscure remains the cure’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C군의 귀에는 obscure와 cure의 각운이 짹~하게 콕콕 박히며 막 그냥 아파하고 싶은 기분이 찰랑거리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기분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이번 영단어 어원탐구는 obscure로 시작하겠습니다.

Obscure

어원 : 라틴어 obscurus

(dark, clouded, gloomy)

Obscure는 형용사로 ‘모호한, 어두운, 희미한, 무명의’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동사로 는 ‘~을 모호하게 하다’ 정도의 의미를 갖는 영단어입니다. 어원은 라틴어로 ‘어두운’의 의미를 가진 ‘obscurus’입니다. 어원의 의미와 현대 영단어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으니 별다른 설명은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Obscure의 경우 어원을 소개하고도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어원을 공유하는 다른 영단어들이 거의 없어서 암기를 촉진(?)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격적인 가을에 어울리며 Obscure와 어원을 공유하는 꽤 예술적인 단어를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죄송한 마음을 메꾸어 보려 합니다.

Chiaroscuro

어원 : 이탈리아 chiaro

(clear, bright) + oscuro(dark)

chiaro : 라틴어 clarus

(clear)에서 유래

oscuro : 라틴어 obscurus

(dark)에서 유래

회화에서 한 가지 색상으로 물체의 입체감을 평면에 표현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명암에 변화를 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 기법을 이탈리아로 Chiaroscuro(키아로스쿠로)라고 하며 우리말로 '명암법'이라 번역해서 부릅니다. [그림 1]은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C군이 며칠(?)을 고생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Chiaroscuro의 예입니다. 조금 어설프지만 원뿔 같아 보이죠?



[그림 1] C군이 매우 복잡한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Chiaroscuro의 예

그러면 Chiaroscuro의 어원은 무엇일까요?

Chiaroscuro는 이탈리아로 '선명함', '밝음'을 뜻하는 'chiaro'와 '어둠'을 뜻하는 'oscuro'의 합성어이며, '어둠'을 뜻하는 이탈리아 'oscuro'의 어원이 앞서 소개한 동일한 뜻의 라틴어 'obscurus'입니다. 또한, '밝음'을 뜻하는 이탈리아 'chiaro'의 라틴어 어원은 같은 뜻의 'clarus'입니다. 앞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Chiaroscuro

자체가 '명암'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음악용어도 그렇고, 미술용어도 그렇고, 이탈리아는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찰찰 흐르는 것 같습니다. Chiaroscuro, 꼭 기억하셨다가 미술관 옆 카페에서 진한 에스프레소 한 잔 앞에 놓고 혼잣말이라도 써보시며 고급스러운 느낌에 풍당 빠져보세요.

"독하고 진한 에스프레소지만, 그 위에 Chiaroscuro 된 가을 하늘로 인해 고독은 쓰지 않았다. 나라는 사람..."

어우... 죄송합니다.....

Secure

어원 : 라틴어 securus

(free from care)

securus : se-(without) +

cura(care)

앞서 소개한 Obscure와 어원으로는 아무 상관없지만 Obscure의 뒷부분인 '-scure'와 웬지 발음이 비슷해서 상관이 있을 것만 같은 영단어 Secure로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Secure는 형용사로 '안전한', '안정된', '불안이 없는' 등의 의미를 가지는 매우 익숙한 영단어입니다. 어원은 라틴어로 '조심/주의/걱정/염려의 필요가 없는' 정도의 뜻을 갖는 'securus'입니다. 이 'securus'를 다시 분해하면 라틴어로 'without'의 의미를 갖는 접두사 'se-'와 'care'의 의미를 갖는 'cura'라고 합니다. 종합하면 'securus'는 라틴어로 'without care'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care'는 '조심', '주의', '걱정', '염려' 등의 의미로 봐서 'securus'는 '조심/주의/걱정/염려가 없는' → '조심/주의/걱정/염려의 필요가 없는' → '안전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익숙했던 영단어 Secure의 어원을 확인해보니 그 뜻이 더 와닿지 않나요?

Insecure

어원 : 라틴어 in-(not) +
securus(free from care)

Insecure는 형용사로 ‘자신이 없는’, ‘불안정한’ 등의 의미를 가지는 영단어입니다. 어원은 라틴어로 부정(not)의 뜻을 가지는 접두사 ‘in-’과 앞서 소개한 ‘조심/주의/걱정/염려의 필요가 없는’ 정도의 뜻을 갖는 ‘securus’입니다. 어원을 풀면 ‘조심/주의/걱정/염려의 필요가 없지 않은’의 이중 부정이 되어서 ‘조심/주의/걱정/염려가 필요한’이 됩니다. 이를 다시 한번 풀어 ‘자신이 없거나’, ‘불안정한’ 이유 때문에 ‘조심/주의/걱정/염려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중 부정의 구조를 가진 어원 때문에 조금 헷갈리지만, 나름 이중 부정 때문에 재미있는 구조의 어원 같습니다.

Sure

어원 : 라틴어 securus
(free from care)

Sure는 중학교 영어 교과과정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형용사로 ‘확실한’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부사로 ‘확실히’, ‘물론’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등을 할 때 ‘Yes’ 대신 ‘Sure’라고 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의 Sure는 부사로 쓰인 Sure입니다. 이 친근한 단어 Sure의 어원도 계속 소개되고 있는 라틴어 ‘securus’입니다. 어원인 ‘securus’의 뜻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확실한’ 것이 되겠죠?

Assure

어원 : 라틴어 ad-(toward, to) +
securus(free from care)

Assure는 ‘~을 장담하다’, ‘~을 확신하다’ 정도의 뜻을 갖는 영어 동사이고, 어원은 또다시 계속되고 있는 라틴어 ‘securus’에 방향성을 나타내는 ‘toward’나 ‘to’ 정도의 뜻을 갖는 접두사 ‘ad-’ 입니다. 걱정이나 주의가 필요 없는 쪽으로 마음 등이 향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장담하거나 확신하는 것이겠죠?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의 가사에 나오는 단어로 시작해서, 시작한 단어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어원으로는 아무 상관 없는 단어로 점프하여 어원 풀이를 엮다 보니, 시작과 다르게 너무 건조한 분위기로 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래의 취지로 회귀하여, 가을에 어울리는 미술관이나 전시회와 관련된 단어로 축축한 가을 정서에 조금이나마 어울리는 어원풀이를 이어보겠습니다.

Docent

어원 : 라틴어 docere
(to teach, show)

미술관이나 전시회에 가보면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분들을 Docent(도슨트)라는 영어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Docent는 ‘대학 등의 강사’, 또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안내인’을 뜻하는 영단어이며, 어원은 라틴어로 ‘가르치다’라는 뜻의 ‘docere’입니다. Docent의 어원으로부터 현대의 의미를 설명하면 ‘일정한 지식을 갖추고 알려주는 사람’을 뜻하게 되고, 그래서 대학의 강사나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안내인을 칭하게 된 것 같습니다.

Docile

어원 : 라틴어 docilis(easily taught)

docilis : docere

(to teach, show)에서 파생

영어에서 착한 아이나 애완동물에게 잘 쓰는 말 중에 Doci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은 '유순한', '고분고분한'이고, 어원은 '쉽게 가르쳐지는' 정도의 의미를 가진 라틴어 'docilis'입니다. 철자에서도 쉽게 유추할 수 있지만, 'docilis'는 앞서 설명한 '가르치다'라는 뜻의 라틴어 'docere'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아이나 애완동물이 '쉽게 가르쳐지는' 것은 대부분 가르친 대로 따르는 유순하고 고분고분한 성격을 가진 경우에 가능한 것이겠죠?

Document

어원 : 라틴어 documentum

(lesson, proof)

documentum : docere

(to teach, show)에서 파생

Document는 '문서'라는 뜻의 영단어입니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너무 익숙한 단어죠? 이 Document의 어원은 라틴어로 '수업', '가르침'(lesson) 또는 '증거물'(proof)을 뜻하는 'documentum'이며, 이 'documentum' 또한 앞서 소개된 'docere'에서 파생된 라틴어입니다. 'docere'의 뜻을 보면 'to teach'와 'to show'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는데,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시범처럼 뭔가를 보여주는 것과 통하는 면이 있어 같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to show'의 '보여주기'에 초점을 두어 'to teach'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보여주기' 자체에 초점을 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ocumentum'의 경우 'to teach'에 해당하는 '수업', '가르침'(lesson)의 의미와 'to show'에 해당하는 '증거물'(proof)의 의미를 모두 'docere'에서 끌어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documentum'의 의미가 점점 '문서화된 가르침이나 증거물' 쪽으로 변하며 현대 영어에서 '문서'를 뜻하는 Document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Doctor

어원 : 라틴어 doctor(teacher)

doctor : docere

(to teach, show)에서 파생

Doctor 또한 앞에서 소개한 Document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영단어입니다. 주로 '의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를 칭하는 단어입니다. 어원은 라틴어로 '가르치는 사람'인 'doctor'이며(라틴어가 변형 없이 그대로 영어로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라틴어를 쓰던 중세 유럽의 대학문화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C군은 추측합니다.), 라틴어 'doctor' 또한 '가르치다'라는 뜻의 'docere'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현대 영어에서 Doctor가 갖는 의미와 라틴어 어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므로 추가의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P.S. C군의 잡설은 귀동냥에 근거하여 재구성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주세요. 🐼